日사업가 탐욕 수집품 된 금동반가사유상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②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30건.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오구라 컬렉션의 한국문화재 수량이다. 한 개인이 수집했던 물량으로서는 상당한 양이다.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가 광복 후 한국을 떠나기 전 남겼던 문화재와 일본에 되팔았던 문화재를 모두 헤아리면 그가 수집한 한국 문화재는 지금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서 발견된 백제계 반가사유상

오구라 컬렉션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불상은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도쿄국립박물관 품번 TC-669)이다. 금동반가사유상은 전 세계에 약 70여 점 정도가 남아있는 희귀한 불상이다. 한국에는 20여 점이 남았고, 일본에는 현존 작품의 60% 이상인 40여 점이 있다.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은 높이 16.3cm의 작은 크기의 불상이지만, 조형미가 매우 사실적이며 빼어나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반가사유상은 표현이 세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은 균형감이 매우 뛰어나며 치밀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압권이다.

〈한일 금동반가사유상 과학적 조사 연구 보고〉에 따르면 반가사유상 본체의 청동성분은 모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조사 연구를 진행한 미타 가쿠유키(三田覚之)는 "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고대 한국 금동불의 특징 중 하나"라며 "양식적으로 커다란 보관에 좌우 모양이 다른 요패를 한 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은 어떻게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왔을까. 도쿄국립박물관의 전시 설명에는 '한국 충남 공주의 사지 석탑 내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진다(韓国忠清南道公州寺址石塔内発見伝)' 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선 기록들과는 차이가 있다. 1941년 일본 고고학회가 펴낸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소장품 전관목록〉에서 이 금동반가사유상은 "충청남도 공주 부근 산성의 탑 가운데에서 발견됐다"고 기록돼 있다.

소장자도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아니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발간한 〈오구라 컬렉션-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한국문화재의 대표작들을 집대성해 편찬한 도록인 〈조선고적도보〉에도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경성공소원 판사 미야케 조사쿠(三宅長策, 1868~1969)의 소장품으로 기록됐다.

구마가야 도서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목록과 1960년 오구라 컬렉션 목록에도 미야케의 소장품으로 〈조선고적도보〉에 실려 있다는 기록과 함께 "미야케가 매수해 메이지 연간(1868~1912)에 일본에 들여 온 것"이라고 명시돼 반가사유상의 유통 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오구라가 입수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1941년 도쿄에서 열린 소장품 전시 목록에는 오구라의 컬렉션으로 실린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일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구라 컬렉션, 탐욕의 수집품

'오구라 컬렉션' 의 주인공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조선에서 도굴을 주도하거나 사주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경상북도의 상황을 보면 오구라가 도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구 일대에서 오구라가 전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당시인 1923년에 대규모 철도 토목 공사들이 진행되며 신라계 고분들이 발굴됐고 이 같은 고분들에 대한 도굴이 성행했다.

오구라 컬렉션 대표 불상 평가
공주 부근 절터 塔에서 발견돼
작은 크기에도 표현 기법 '우수'

공주시의회, 환수 위한 의정토론
새로 원 구성… 환수 '잠시 멈춤'
충남도, 실태조사단 활동 재개해
"교환 전시 등으로 여론 환기를"

1925년 4월 15일자 〈경성일보〉에는 "(고분)출토품은 내지인 고매자(故買者)에 의해 대구의 호사가에 판매되는 일도 있으며, 부정하게 밀굴이 금후 거듭 행해지고 있어 신라왕조의 문화를 연구할 자료가 산일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대구의 호사가' 는 오구라를 비롯해 시라카미 주키치(白神壽吉), 이치다 지로(市田次郎) 등이며 이들은 경쟁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특히 오구라의 경우 도굴꾼 사이에서는 값을 높이 쳐주기로 유명해 도굴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동품을 들고 찾아갔다고 전해진다.

역사학자 이홍직은 "오구라는 창녕 일원 삼국시대 고분의 도굴품을 사들여 도굴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급거 귀국하게 된 오구라는 그 와중에도 문화재들의 이전과 보존에 만전을 기했다. 1956년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를 발족해 자신의 문화재를 관리했으며, 1964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된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오구라 컬렉션 중 하나로 컬렉션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16.3cm의 작은 크기지만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오구라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 공주 절터의 탑에서 도굴된 금동반가사유상이 여러 루트를 거쳐 오구라의 수집품이 됐음을 추정이 가능하다.

반가사유상 환수운동의 시작

오구라 컬렉션은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 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개인 불법 수집품의 목록에 오구라 컬렉션의 소장품을 포함시켰고, 돌려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려 한다면 이를 권장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1981년 오구라 컬렉션은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고,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어떠한 의사타진도 하지 않았다. 사유 재산이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 정부의 국유 재산이 됐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대표는 이를 두고 "외교 상 '금반언 원칙(禁反言 原則)' 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반언 원칙' 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근 대표는 "외교 상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일본 정부 스스로 어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주에서 반출된 금동반가사유상은 1965년 한일협정 부속서 이행 촉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유 재산이 된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환수운동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14년 당시 문화재제자리찾기가 도쿄재판부에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결렬됐다.

2019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충남도와 공주시로, 두 곳 모두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환수가 목표이기도 하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2월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등의 환수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윤용혁 공주향토문화연구회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현재의 소유권자가 전제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 혹은 공감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에 대한 치밀한 학술적 검토와 객관적 접근이 우선이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공적 기관 혹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로 인해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교체되면서 지속적인 환수사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주시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2월 이뤄진 의정토론회 이후 별도로 진척된 사항은 없다"면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충남도는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등 지역 유출 오구라 컬렉션의 환수를 위한 조사 등 환수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6년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을 가결하고 2017년에는 충남국외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외 반출문화재를 조사 · 연구하기 시작했다. 3기 활동 중인 충남도국외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단장 이공휘)은 지난 6월 23~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철화분청물고기무늬병, 고려와 조선의 문인석 등 100여 점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공휘 조사단장은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소장단체나 소장자와의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는 점이 있다. 현지 조사를 하면서 단체와 개인 소장자와의 교류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도 소장 단체, 소장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출 문화재 대여 전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 반출문화재 특별전시를 열어 일본 등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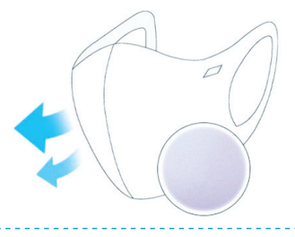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 5개 1셋트 27,500원 (개당 5,500원) / 배송비별도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